

# 러시아 경제와 극동 개발의 최근 동향 및 전망

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·유라시아팀장

2015. 2. 2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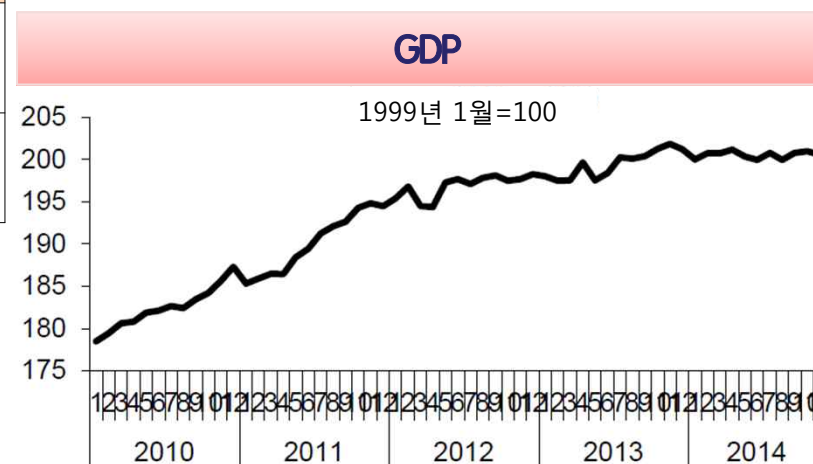
# 목차

- 1/ 경제동향
- 2/ 유가하락의 경제적 여파
- 3/ 금융시장 상황
- 4/ 정책적 대응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
- 5/ 3기 푸틴 정부의 극동 개발 정책
- 6/ 극동 주요 유망협력분야 및 지원방안

■ '우크라이나 사태'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 유가하락으로 인해 **성장 둔화 심화**, 특히 유가급락으로 인해 **4분기 마이너스 성장**

➤ 2010년 4.5% 성장 이후 4년 연속 성장 둔화(러 중앙은행 2014년 0.6% 발표)

|              | 2010년  | 2011년  | 2012년  | 2013년  | 2014년  |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상반기    | 1~11월  |
| 실질GDP증가율 (%) | 4.5    | 4.3    | 3.4    | 1.3    | 1.0    | 0.6    |
| GDP (10억 루블) | 46,309 | 55,967 | 62,218 | 66,755 | 33,689 | 65,535 |



| 실질GDP증가율  | 2012년 |     |     |     | 2013년 |     |     |     | 2014년 |     |     |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|
|           | 1     | 2   | 3   | 4   | 1     | 2   | 3   | 4   | 1     | 2   | 3   | 10월 | 11월  |
| 전년동기대비(%) | 4.9   | 4.3 | 3.0 | 2.0 | 0.8   | 1.0 | 1.3 | 2.0 | 0.9   | 0.8 | 0.7 | 0.5 | -0.5 |
| 전기대비(%)   | 0.1   | 0.2 | 0.7 | 0.9 | -0.1  | 0.4 | 0.9 | 0.6 | -0.5  | 0.0 | 0.0 | 0.1 | -0.2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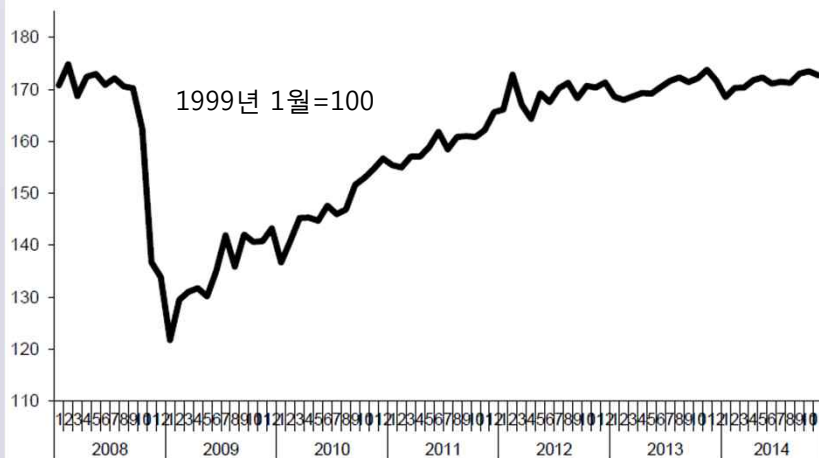
자료: 러시아 경제개발부.

# 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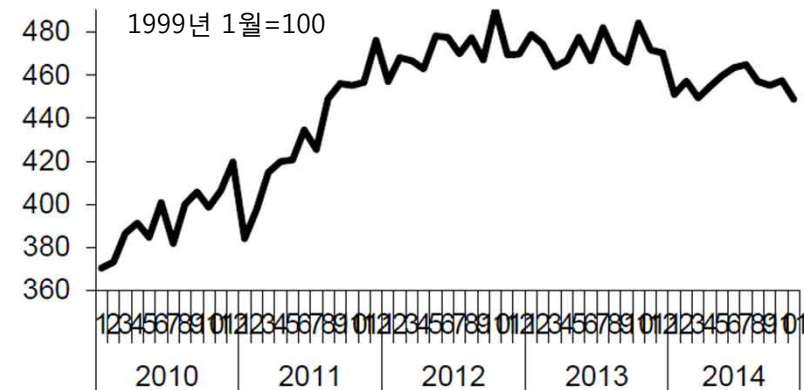
■ 2013년부터 감소세였던 **고정자본투자 감소폭 확대**(2013년 -0.2%, 2014년 1~11월 -2.8%), 제조 및 에너지 부문 생산 부진으로 인해 **산업생산 둔화 지속**

| 전기대비<br>증가율(%) | 2013년 |      |     |      | 2014년 |      |      |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
|                | 1     | 2    | 3   | 4    | 1     | 2    | 3    | 10월 | 11월  |
| GDP            | -0.1  | 0.4  | 0.9 | 0.6  | -0.5  | 0.0  | 0.0  | 0.1 | -0.2 |
| 산업생산           | -1.4  | 0.7  | 1.2 | 0.5  | -1.6  | 1.2  | 0.1  | 0.2 | -0.4 |
| 고정자본투자         | -0.9  | -0.4 | 0.5 | 0.6  | -4.8  | 1.5  | -0.1 | 0.5 | -1.9 |
| 건설             | -1.4  | -2.2 | 1.3 | -0.4 | -2.5  | -1.6 | -0.4 | 3.5 | -1.5 |
| 실질임금           | 1.4   | 2.3  | 0.5 | 0.6  | 1.2   | -0.5 | -1.4 | 0.0 | -0.1 |
| 소매거래           | 1.0   | 1.1  | 1.0 | 0.7  | 0.7   | -0.2 | 0.3  | 0.0 | 0.2  |

## 산업생산



## 고정자본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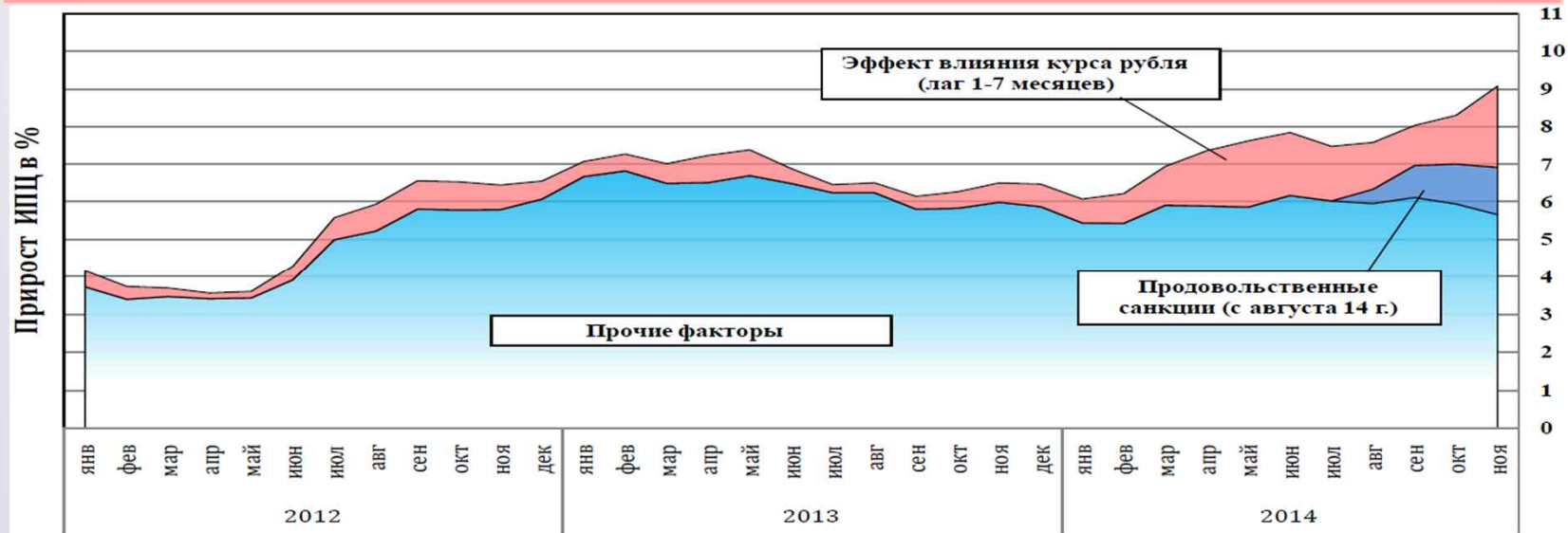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러시아 경제개발부.

- 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 10월, 11월 전년동기대비 각각 -2.9%, -4.8%
- 산업생산은 11월 전년동기대비 0.4% 감소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8년 13.3% 이후 6년 만에 최고치 기록(11.4%)
  - 8월 러 정부의 대 EU, 미국, 캐나다, 노르웨이, 호주 식료품 수입금지조치, 유가급락 및 환율급등의 영향(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1.2%)
- 10월, 11월 실질임금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.6%, 0.5%로 둔화
- 소매거래증가율은 각각 1.6%, 1.8% 기록, 11월 실업률은 5.2%로 아직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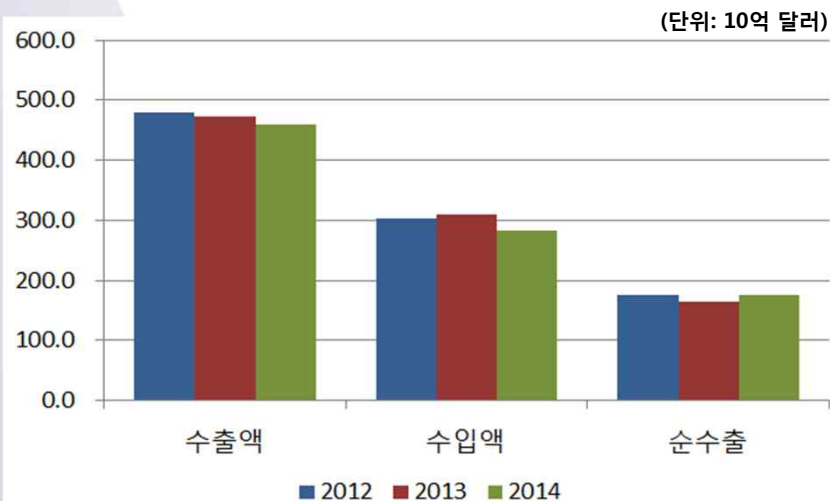
루블 약세 및 EU, 미국, 캐나다, 노르웨이, 호주 식료품 수입금지조치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



자료: 러시아 경제개발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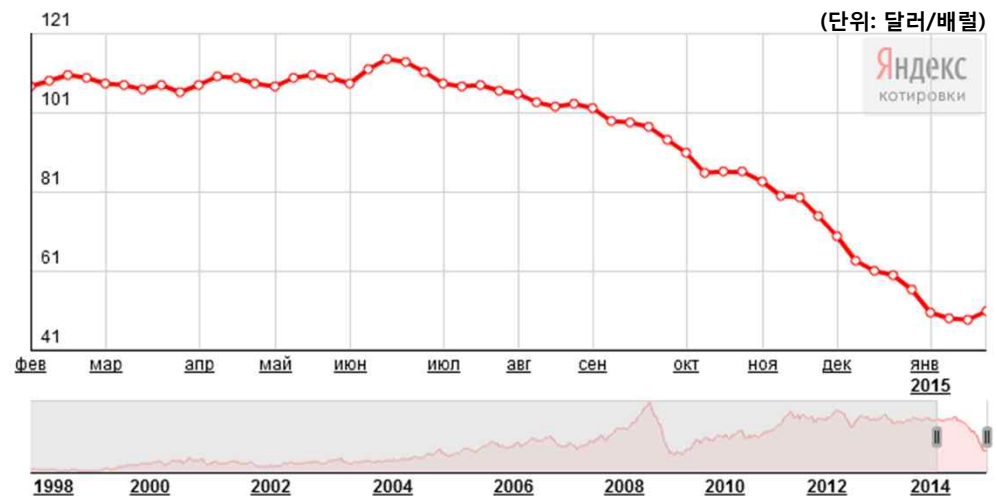
-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, 2014년 **무역수지 흑자 소폭 증가**
  - 1~11월 수출은 4,59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.1% 감소, 수입은 2,829억 달러로 8.4% 감소, 1~11월 무역수지 흑자는 1,76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7% 증가
  - 러시아 경제는 막대한 에너지 수출(약 70%)을 통한 상품수지 흑자로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총당→경상수지 흑자 구조, 유가하락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에 영향

연도별 1~11월 수출입 추이



자료: 러시아 경제개발부.

유가 변동 추이 (ICE.Brent)



## 유가하락의 경제적 여파

■ 석유·가스(에너지) 부문이 GDP의 약 20%, 수출의 약 70%, 재정수입의 약 50% 차지, 유가하락은 경제성장에 큰 영향(가스 가격도 유가 연동)

- 유가하락→무역수지 흑자 감소, 경상수지 흑자 감소, 재정수입 감소, 투자 감소
- 러 중앙은행은 2015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머물 경우, 소비 및 투자 감소 심화로 성장률 -4.5~4.7% 전망(최근 -3.2% 전망 발표)
- 러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전망연구소도 유가가 배럴당 64~68달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, -2.8% 전망
- 러 고등경제대 개발연구소는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에 머물 경우, 환율 및 물가상승률 증가,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흑자 감소, 순자본유출 증가 등으로 -6.0~7.0% 전망
- 재무부는 배럴당 60달러를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10% 감축한 2015년 예산안 재편성, 재정적자 폭이 2009년 이후 최초로 GDP 대비 3.0% 이상 확대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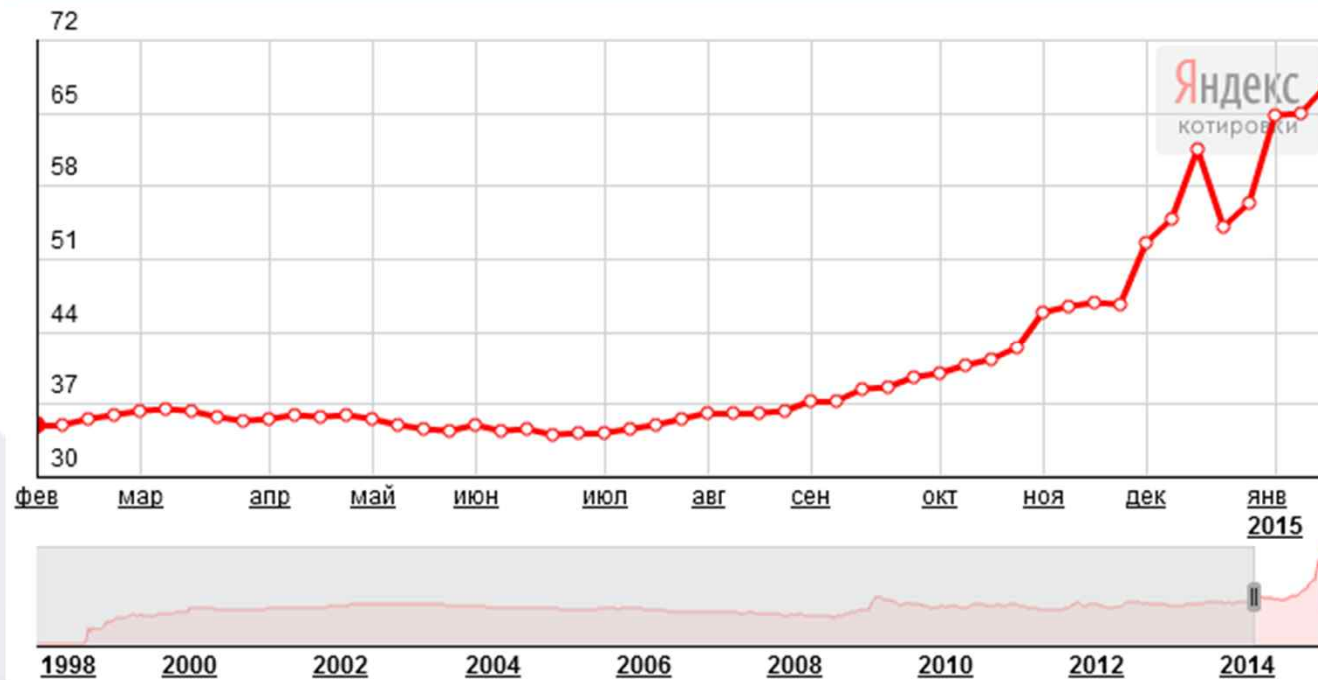
■ 준비금펀드 및 국부펀드로 인해 러시아 정부 재정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

- 석유·가스 생산 및 수출의 일정액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GDP 10%까지 준비금펀드로 비축, 국민연금 재정 보전을 위해 GDP의 3.7%를 국부펀드로 비축
- 2014년 12월 기준 준비금펀드 889억 달러, 국부펀드는 800억 달러 적립
- 다만, 재정적자 확대 또는 이를 준비금펀드로 충당할 시 위험 가능성

-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해 **환율 및 CDS 프리미엄 급등, 자본유출 가속화** 등 금융 시장 불안 증가
  - **루블화 환율**은 연초 달러당 32.7루블에서 12월 18일 67.8루블까지 급등, 중앙은행의 적극적 조치로 인해 다소 안정, 최근 다시 상승(1월 20일 달러당 64.99루블)
    - 러 중앙은행에 따르면, 루블화 가치하락에 유가하락이 약 30%p, 경제제재가 20%p 이상 영향
    -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 매각으로 연초 5,505억 달러였던 **외환보유고**가 12월 19일 3,989억 달러, 1월 2일 3,862억 달러(지난 5년간 최저치)로 **감소**
  - **러 CDS 프리미엄**은 12월 16일 576bp까지 상승한 후 다소 진정(12월 24일 441bp)되었으나, 최근 다시 상승(1월 19일 539bp)
  - 4분기 자본유출 심화로 2014년 **순자본유출액**이 1,515억 달러(3분기까지 786억 달러)
- **대외채무**의 대부분이 장기채무인 바, 당장 위기 가능성은 낮은 편
  - 2013년 말 7,310억 달러→2014년 9월 6,780억 달러→2015년 1월 5,990억 달러
  - 국가채무(정부기관 및 중앙은행 부채)는 약 520억 달러
  - 2015년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약 1,200억 달러 수준



루블/달러 환율 변동 추이



- 2005년 2월 도입된 이중통화 바스켓의 환율밴드제를 폐지, **자유변동환율제 전격 도입**(2014.11.10)
  - 환율 방어 조치에도 루블화 가치 지속 하락, 지속적인 시장개입으로 투기세력 활동 조장, 외환보유고 감소 우려 제기
  - 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융정책 유연성 제고, 투기적 수요 발생시 개입 선언
- 러 중앙은행은 12월 **기준금리 대폭 인상**, 금융부문 안정화 방안 발표
  - 12월 16일 중앙은행은 '루블화 평가절하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대응 목적'으로 **기준금리**를 기존 10.5%에서 17%로 인상(연초 5.5%)
    - 1차(3월) 5.5%→7.0%, 2차(4월) →7.5%, 3차(7월) →8.0%, 4차(11월) →9.5%, 5차(12.11) →10.5%, 6차(12.16) →17%, 최근 15%로 인하(2015.01.30)
    - 경제제재와 유가급락에 따른 경기악화 상황 속에서 고금리 유지 시 내수침체 및 투자감소 심화 우려
  - 12월 26일 주요 대출기관인 '트러스트뱅크(Trust Bank)'에 최대 240억 달러 지원 발표
    - 12월 24일 2015년 만기 도래 대외부채 상황 대비 수출기업 중심으로 1,00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 지원 결정

- 러시아 경제는 원료 부문, 특히 석유·가스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취약
  - 2009년부터 경제 현대화 정책 수행으로 이러한 구조에서 탈피 노력, 이번 위기는 그간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의미
  - 2014년 12월 18일 푸틴의 의회 연례교서 - “우리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.”
- 첫째, 비즈니스 활동 자유 확대, 투자환경 개선
  - 임의적·의도적·다중적 기업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조사(inspection) 제한 시스템 도입하고, 소기업에 한해 등록 후 3년 경과 시 3년간 감독(supervision) 유예, 향후 4년간 기존 세제(稅制) 유지 등
  - 생산 소기업에 한해 등록 후 2년간 조세 유예, 우회투자 합법화 시 전면 사면 단행, 국가 투자환경 순위 조사의 연방주체 전체 확대, 지방도로 확충을 위한 지방도로 펀드 추가 지원, 연방주체의 공단 건설 지출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시행 등

## ■ 둘째, 중점 지역 개발

- 크림 경제특구(SEZ) 조성법 서명 완료, 2016년 칼리닌그라드 주 조세특혜 유효기간 만료 대안 마련, **극동 개발을 위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(TASED) 관련법 서명 완료** 및 해당 제도의 전면 확대, 극동 지역 연방 조세 증가분 일부의 **극동개발펀드 지원**
- 관세 경감을 통해 **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자유항 지위 부여**, 태평양 연안 비즈니스 활동 및 북극지대 개발 촉진을 위한 **북극항로 개발 복합 프로젝트 수행** 등

## ■ 셋째, 합리적 수입대체 정책을 통한 비원료 부문의 발전

-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과 국내 기업에 대한 발주 배분·국내 생산 및 연구 기반 발전·생산 현지화를 연결하는 **특별조정센터 설립**, 주택공공서비스·대중교통·농업 등의 혁신에 **국내 기업의 참여 확대**, 국영기업 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 확대 및 연간 의무 구매량 규정
- 전략이니셔티브청의 주도로 대외경제은행, 러 직접투자펀드와 함께 **비원료 기업에 자본·기술·인력·장비를 지원**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, 비원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은행 주도의 **수출신용보험지원센터 가동**을 통한 **공산품 수출 증대** 등

## ■ 넷째,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국내화

- 우회투자 기업에 대한 사면, 은행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통한 예금의 투자 전환, 국부펀드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주요 국내 은행의 추가자금 확보 프로그램 시행,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메커니즘 도입 등

## ■ 다섯째, 합리적인 재정지출

- 예산지출의 원칙은 검약(儉約), 산출의 최대화, 올바른 우선순위 선택,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
- 향후 3년간 매년 전체의 5% 이상 예산지출 절감, 통합기술 발주자 시스템 구축 및 형태별 프로젝트 준비·건설 서류·도급업자 선정의 집중화를 통한 건설 예산지출 10~20% 절감, 국방부와 로스핀모니터링(Rosfinmonitoring) 주도의 엄격한 국방 예산지출 감독 시스템 개발, 국영기업 자금 운용의 투명성·합리성,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통합계산센터 설립, 국가 지분 50% 이상 기업에 대한 효율성 지수 도입 및 임원진 임금의 실적 연계 등

## 3기 푸틴 정부의 극동 개발 정책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계획(프로그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5년까지 극동·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(2009년 확정)</li> <li>- 국가 프로그램 '극동·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(2013년 확정, 2014년 전면 개정) 및 하부 프로그램 '국가 프로그램 '극동·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'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균형발전 조치'(2014년 확정)</li> <li>- 연방 목적 프로그램 '2018년까지 극동·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'(2013년 확정)</li> <li>- 연방 목적 프로그램 '2007-2015년 쿠릴 열도(사할린 주) 사회경제 발전'(2006년 확정)</li> </ul> |
| 제도적 메커니즘 | 연방 거버넌스 변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극동개발부(2012년 설립, 2013년 권한 확대)</li> <li>-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(2013년)</li> </ul>  |
|          | 극동 개발 관련 기구 설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)달니 보스토크(설립 예정):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운영</li> <li>- 극동 투자유치·수출지원청(설립 예정): 투자 및 대외경제협력 촉진</li> <li>- 인적자본개발청(설립 예정): 이주민 교육 및 유치</li> <li>- 극동·바이칼 지역 개발 펀드(2011년 설립): 프로젝트 투자 참여</li> </ul>   |
|          | 특혜적 법·제도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세특혜법 제정(2014년 발효)</li> <li>-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(2014년 말까지 연방법 제정 예정)</li> <li>-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(2014년에 2025년까지로 기간 연장 결정)</li> <li>- 블라디보스토크 '산업-생산' 특별경제지대(2014년 조성 결정)</li> </ul>   |

# 극동 주요 유망협력분야 및 지원방안

|         |   |
|---------|---|
| 주요 협력분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내 반제품(半製品) 또는 부속품 생산</li> <li>- 석유·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</li> <li>-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</li> <li>- 남·북·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</li> </ul>   |
| 지원방안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</li> <li>- 민관협력(PPP)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</li> <li>- 투·융자 플랫폼, 해외금융, 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</li> <li>- 정보제공방식의 개선</li> <li>- 다자협력 추진</li> <li>- 유라시아 국제협력 관련 한·중·러 3개국 공동연구 사업 추진</li> </ul> |